

고창군, 활력지원금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시너지
다음달 22일부터 지급 시작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고창군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더해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욱 확대하고자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 추석 전 군민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이 지급되며 정부의 추가 소비쿠폰까지 더하면 추석 전 1인당 30만원씩을 더 받게 된다. 군과 군의회가 협의를 마친 군민활력지원금 지

급 결정은 군이 올해 ‘타미널도시재생혁신지구’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에 집중해 온 터라 재정여건상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에도 위축된 경기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 이어 이마저 가게 형편상 넉넉히 쓰기 어렵다는 사연들이 많았다.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각종 농산물 피해와 물가상승이 이어졌던 것도 추가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했다. 이에 군과 군의회는 정부 소비쿠폰으로 불붙은 민생회복의 불씨를 살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재정건

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군민활력지원금의 지급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집중해 왔던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필요 사업들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활력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워주고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민생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 지원

169개 가금·양돈농가에 완화제 1만563포 공급

고창군이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 폭염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한다. 고창에서는 올여름 폭염으로 20농가에서 5만2000수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축산분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군은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예비비를 포함 총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169개 가금·양돈농가에 스트레스완화제 1만563포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축 폭염스트레스 완화제는 고온 환경에서 가축의 체온상승을 억제하고 사료섭취 저하 및 생산성 감소를 방지하는 제품이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 중이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로 ‘축산재해 종합대책 상황반’도 운영하고 있다. 염경선 고창군 축산과장은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는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폐사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지원이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가들이 안



고창군의 한 오리농장.

정적인 축산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역사·문화 투어하며 ‘정읍 매력’에 흠뻑~

청년 35명 ‘시티스테이 투어’
도시재생 거점 연계 체류형 여행
1박2일 일정 3회차 투어 마무리

정읍의 역사와 자연, 도시재생이 어우러진 ‘시티스테이 투어’가 청년들에게 정읍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는 시지역활력센터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총 35명이 참가한 1박2일 일정의 ‘정읍 시티스테이 투어’ 3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의 일환으로 기획된 정읍의 대표 관광지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투어는 9월까지 총 4회로 진행되며 참가한 청년들에게 정읍 곳곳의 문화와 자연을 소개한다. 첫날 투어에서는 정읍의 역사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시작으로 용산호 미르섬의 정취와 숲문화관을 체험했다. 둘째날에는 내장산 조선왕조실록길과 케이블카를 체험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원



정읍시의 ‘시티스테이 투어’에 참가한 청년들이 정읍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도심 자유 투어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과 골목 풍경을 직접 탐방하기도 했으며 떡어울림플랫폼에서 떡 만들기 체험을 하기도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시티스테이 투어가 청년들이 정읍의 매력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지역의 변

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정읍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피오리움 ‘개관 100일’ 무료 입장

내일까지 개관식·달빛콘서트 등

남원시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 ‘피오리움(Fiorium)’의 개관 100일을 기념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무료입장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무료입장은 개관 후 누적 이용객 6만여명을 기록한 피오리움이 시민과의 성장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기획한 특별 행사다. 특히 9일에는 피오리움 및 달빛정원의 개관식을 포함, 사랑의 광장에서는 2025 남원요전 물축제와 연계한 달빛콘서트가 열린다. 개관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피오리움 실내와 야외 정원에서 열리며 전시투어와 축하 공연, ‘잇

다 행렬’ 퍼포먼스 등이 함께 진행된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주요 내빈과 시민을 대표하는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00일 기념 이벤트는 기존 관광 동선을 넘어, 남원 도심 속 전통과 디지털,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피오리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남원의 미래 관광을 열어가는 거점이자 문화 플랫폼”이라며 “이번 무료입장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머물 수 있는 남원의 가능성을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중소기업 ‘중대재해’ 컨설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모집...선착순 6곳 자부담 '0'

남원시가 ‘남원형 렉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진단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중소기업 대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현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강화 흐름에 맞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 소재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체다. 단 올해 신규인력의 채용 이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자부담 없이 전문적인 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선착순으로 총 6개 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컨설팅 종료 시까지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법적 부담을 낮추고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정부의 중대재해 대응 기조에 맞춰 지자체도 기업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렉스타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난임 시술’ 지원 연령 차등 폐지

정읍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차등도 폐지한다. 시는 기존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을 출산 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지원 금액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인공 수정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함께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 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총 1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1건이 임신에 성공해 1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가정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